

# 고향 · 새로운 등지 마음 표현 '텃에-nest'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지역작가 전시 '박지은 작가전' 진행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지역작가 전시로 박지은 작가의 '텃에-nest'가 열리고 있다. 9일 완주군에 따르면 박지은 작가의 전시는 삼례문화예술촌이 여섯 명의 지역작가와 함께 준비한 지역작가전시 시리즈의 마지막 전시다. 박 작가는 보금자리란 의미하는 '텃에'라는 주제로 그려낸 30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옷칠재료를 표현된 작품에 한국적 서정을 담아내 편안한 사색이 전해지도록 하고 있다. 부담 없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보금자리란 이름으로 자신의 집이나 어머니의 품속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로 쓰이는 텃에 라는 말은 동우리의 방언으로 어머니의 품을 떠올리게 만든다. 작가는 고향을 떠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며

새로이 얻어진 행복감과 오래된 것들에 대한 상실감 그리고 낯선 것들과 적응하며 생기는 갈등들에 의한 마음을 동물을 의인화해 표현한다. 또한, 고향을 그리는 마음과 새로운 등지를 고향 삼아 살아가는 마음이 묘하게 부딪히던 심경을 표현하며 내 마음이 편한 곳이면 보금자리가 될 수 있다는 심적표현을 조형화하고자 옷칠기법을 이용하면서 서정적인 감성을 발산시킨다. 칠의 기능성을 예술적으로 이끌어내 소박한 삶의 심리적 안정을 안겨줄 수 있는 이미지를 만날 수 있다. 전시는 내달 28일까지 삼례문화예술촌 제3전 시관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



박지은 작가 작품

## 한스타일메이커스 창업과정 작품전시회 개최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경력단절여성 만든 수공예 작품 100여점 전시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박성숙)는 한옥 마을 공예품전시관 제2전시관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이 만든 수공예 작품을 8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회에서는 2022년 여성가족부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교육훈련인 '한(韓)스타일메이커스 창업과정' 수료생 14명이 만든 '인형한복, 신한복, 매듭작품' 등 100여 점이 전시된다. 전통문화와 창업에 관심 있는 경력단절여성

들은 △순으로 한을 한을 엮어가는 매듭공예 △전통양식에 현대적 가치를 더한 철리원피스, 두청치마 등 생활한복 △한복의 아름다움을 장식품으로 만나볼 수 있는 미니어저 한복 등을 만들었다. 박성숙 관장은 "이번 한스타일메이커스 창업 과정이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획기적인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내는 기회가 될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린 한스타일메이커스 창업과정 수료생 14명이 만든 '인형한복, 신한복, 매듭작품' 등 100여 점이 전시된다. /김영태 기자

## 인영희 작가, 남원향교에 작품 기증

남원 출신 인영희 작가가 9일 남원향교 기로연을 맞아 어르신 공경과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도예 작품을 기증했다. 이번 기증 작품 '모란에 물들다'는 남원아트센터 개관기념전으로 열린 남원국제도예작가초대전에서 전시되었던 작품으로, 모란꽃의 아름다운 자태를 달향이리에 담은 인영희 작가의 대표작 중 하나이다. 한편 인영희 작가는 제35회 대한민국미술대전(전통미술 공예부분) 특선, 제35~36회 대한민국의대인문화대전 전국공모전 수상 등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으며, 문화예술분야 뿐만 아니라 남원시 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봉사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주천년한지관, 자연물 활용 한지 제조 교육 워크숍 가져

전주천년한지관은 지난 8일 스위스 출신의 종이예술가 앤-리자 스튜더(Anne-Lise Studer)씨를 초청, '자연물을 활용한 한지 제조 교육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워크숍 초청강사로 나선 앤-리자 스튜더씨는 가을로 물든 후석골 근처 자연물을 활용해 종이로 제조해보고, 또 전통한지와 접목해 새로운 응용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앤-리자씨는 다양한 예술적 표현을 종이로 선보이는 종이 예술가로 나무, 잎, 꽃, 풀기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해 명시적인 조형적 형태를 만들어 이야기를 전하는 작가다. 또한 식물을 이용해 종이를 제작하며 나뭇잎과 씨앗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는 관찰을 통해 자연이 품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을 매혹적으로 끌어내고, 자연친화적인 한지의 특성을 극대화시키



전주천년한지관은 지난 8일 스위스 출신의 종이예술가 앤-리자 스튜더(Anne-Lise Studer)씨를 초청, '자연물을 활용한 한지 제조 교육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예수병원 송지호의 '일상의 행복' 주제로 세 번째 전시회 '치유 갤러리' 초대전을 열었다.

## 예수병원 치유 갤러리 초대전

송지호 작가 '일상의 행복' 주제 내년 1월 8일까지 진행

예수병원은 송지호의 '일상의 행복' 주제로 세 번째 전시회 '치유 갤러리' 초대전을 열었다. 예수병원 치유 갤러리는 예수병원을 찾는 환우들에게 의료서비스와 함께 쾌적한 의료 환경에 주목해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위한 프로젝트로, 전라북도 지역 내 작가의 미술 작품을 전시해 지역 미술계와도 상생할 수 있는 차별화된 예수병원만의 문화 행사이다. 이번 초대전은 물질보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행복보다는 '일상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작품 6점을 8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감정들을 익살스럽고 동화적인 상상력을 더해 행복의 가치를 토끼를 통해서 표현해낸 송지호 작가는 사실 토끼피인 팔과 본인의 모습을 서로 그림으로 소통하면서 내면의 감정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전시됐다. 예수병원 관계자는 "지친 마음을 치유하

고 일상에서도 미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한 예수병원 치유 갤러리가 코로나 블루(우울감)와 병원을 찾는 환우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지호 작가는 "마음이 행복하면 삶이 즐겁고 행복하다. 행복은 누군가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며 "바쁘게 돌아가는 삶속에서 잠시 여유를 두고 마음의 즐거움을 느끼며 작품으로 행복을 상상했으며 좋았다"고 말했다. 예수병원은 환자 및 보호자의 치료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내 유명작가들의 작품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병원을 전시 공간적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예술적 공간으로 재탄생하여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화예술향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병원을 찾는 환우들의 높아진 의식 수준에 발맞춰 나아가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태 기자

## 한국전통문화전당, '김치의 날' 맞아 각양각색 김치 체험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11월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시민들에게 김치와 김장문화에 대해 배우고 다양한 김치를 만들어볼 수 있는 '각양각색 김치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김치의 날'은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국민들에게 김치의 영양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아울러 11월 22일 제정에는 '김치의 다양한 재료 하나하나가 모여 22가지 이상의 효능을 지닌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김치와 김

장문화에 대해 배우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활용해 만들어보는 조리체험 시간으로 꾸며졌다. 전당 조리체험실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배추김치 만들기 △겨울철 계절김치 만들기 △간장김치 만들기 등 다채로운 강의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22~2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원활한 체험을 위해 회차별 20명을 모집한다. 김치를 만들어보고 싶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